

석유화학, 나프타 강세 업고 호황?

대신경제, 공급차질과 성수기 진입도 호재 ... 한화·KCC 매수 추천

대신경제연구소는 3월3일 국제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 등을 반영해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<매수>로 상향 조정했다.

안상희 애널리스트는 “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상승에 따라 6.8% 상승한 톤당 455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당분간 공급차질과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어 2/4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”으로 분석했다.

또한 “1월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출하지수증가율이 12월 2.3%에서 3.4%로 크게 개선되고, 재고지수증가율도 12월 11.4%에서 11%로 호전되고 있어 2004년 2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던 출하지수 하락추세가 멈추고 있는 것”으로 판단했다.

더군다나 2/4분기 이후 국내 실물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석유화학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대신경제연구소는 한화석유화학과 금강고려화학에 대해 투자 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1만7500원, 17만3000원을 제시했다.

<화학저널 2005/03/07>